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사단 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3층)
T (062) 431-6339 F (062) 262-6340
<http://www.eccplus.co.kr>

《요 약》

▶ 경기지표

광주지역 3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3.7에서 소폭 하락한 3.3을 기록함. 고용관련 구성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제조업 관련 구성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제조업 및 수출

광주지역 3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4.5% 상승해 전월 26.7%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임. 주요 제조업종이 모두 전월에 비해 부진했음. 3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 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광주지역 4월 수출액은 14억7315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6.2% 증가했음.

▶ 내수

광주지역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크게 반등한 113.6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함.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738억원으로 전년동월비 -4.7% 하락하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보임. 광주지역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로 전월과 같았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95%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함.

▶ 고용

광주지역 4월 실업률은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2.9%를 기록함. 고용률은 59.0%로 전국 60.6%에 미치지 못하나 99년 6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광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74만명으로 전월대비 1만9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8천명, 30~39세에서 3천명, 40~49세에서 1천명, 60세 이상에서 6천명이 증가함. 50~59세는 2천명 감소함. 자영업자의 수는 16만5천명으로 2천명이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1만1천명 증가한 54만2천명을 기록함. 특히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6천명이 증가함.

▶ 물가 및 가계

4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0% 상승함에 따라 4개월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지출목적별로 보면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다수 항목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4월 광주지역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8%,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8% 상승함.

▶ 투자확산지수

2014년 5월 Fast 투자확산지수는 7.0로 하락, Slow 투자확산지수는 8.7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지수하락이 불가피했고 일부 상승한 지표도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 집중분석 - 직업에 대한 인식

2013년 하반기 광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타 지역에 비하여 중간에 속하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8.8%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고 있음. 성별 실업률의 경우 광주지역 남성 실업률은 3.5%, 여성 실업률은 1.5%로 그 격차가 2%p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광역시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군복무로 인해 15~29세의 구성비가 낮은데 반해, 여성은 비교적 고른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광주지역의 남성은 30대와 40대가 각각 26.13%, 28.77%를 차지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었고 여성은 15~29세와 30대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광역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에서와 같이 군복무 여부에 따른 성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은 15~29세의 비중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른 구성비를 보임. 광주지역은 남녀 모두 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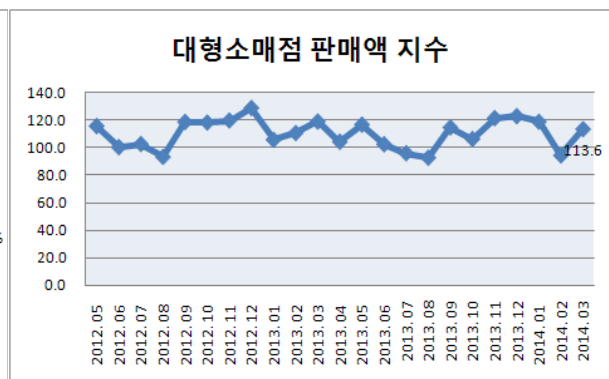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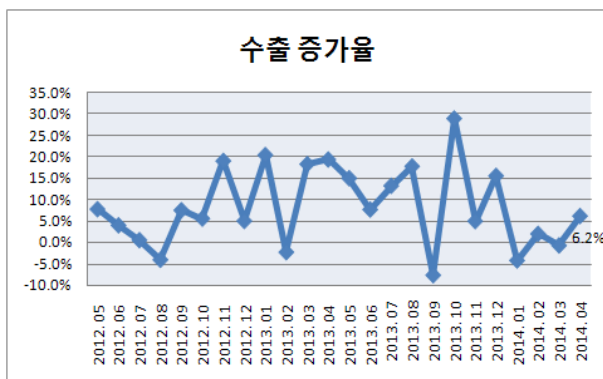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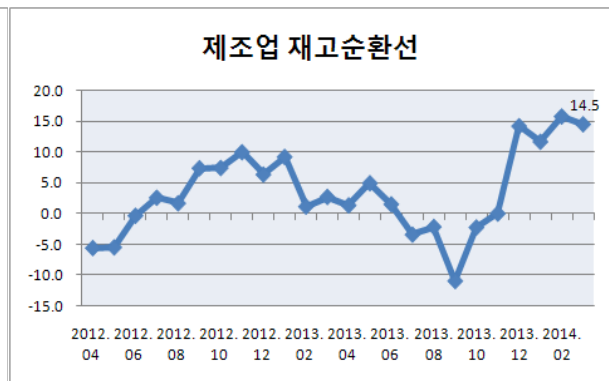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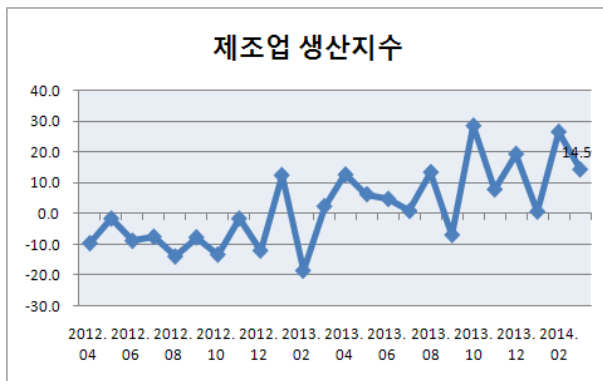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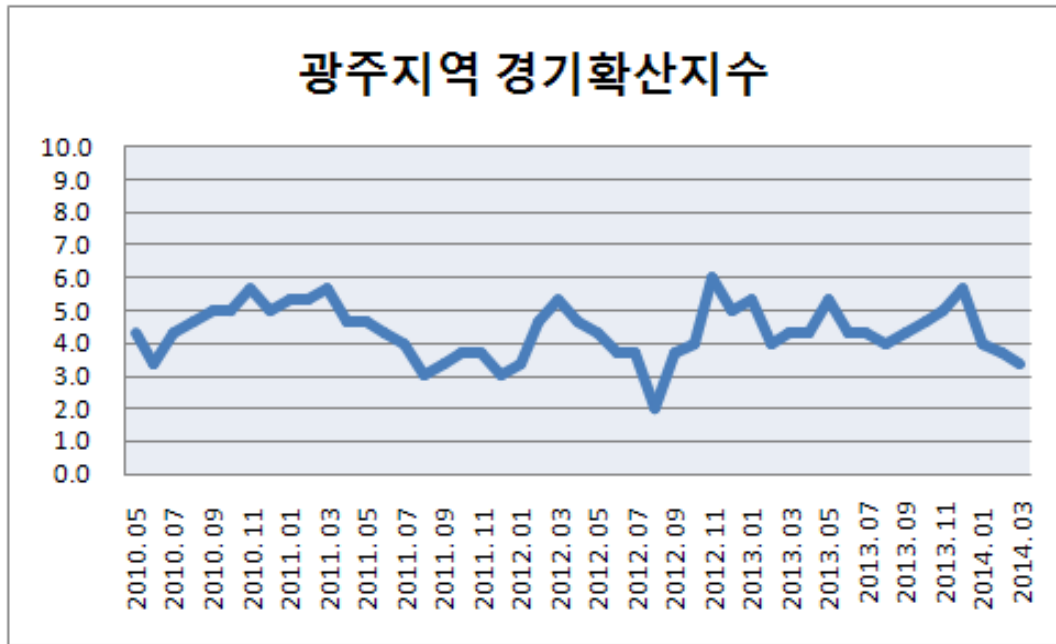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지역은 남녀 대졸이상의 비중이 각각 52.78%, 46.0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비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나누어 보면 남녀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 광주지역은 대졸이상의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구분해보면 육아와 가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학과 진학준비의 비중이 높음. 남녀별로 나누어보면 활동상태의 구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남성은 재학과 진학준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가 가장 큰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광주지역은 육아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남녀 모두 재학과 진학준비, 취업준비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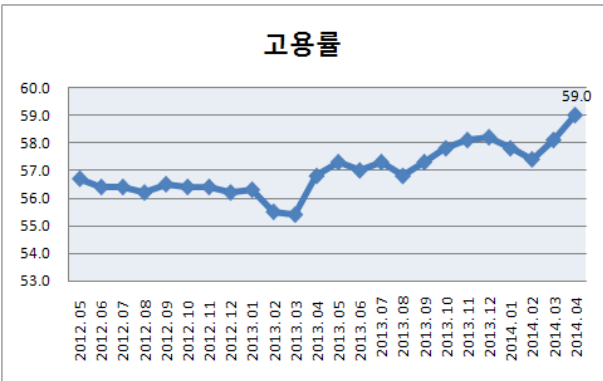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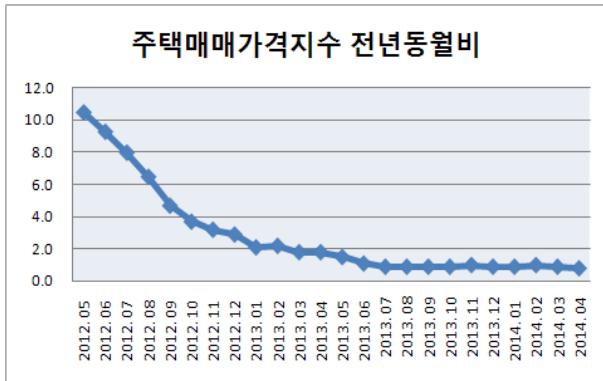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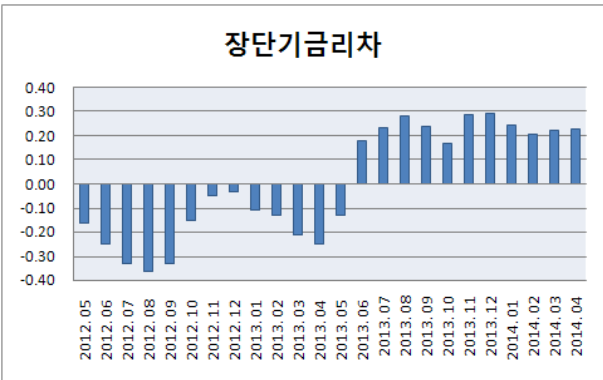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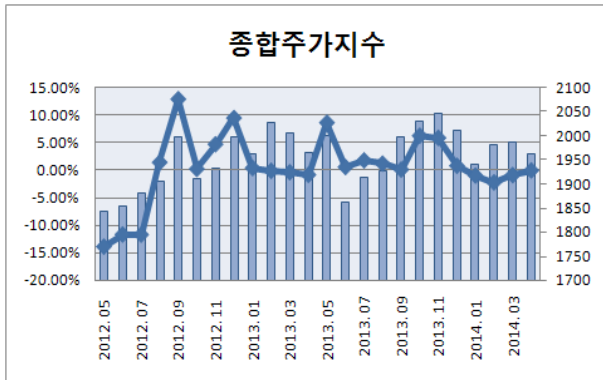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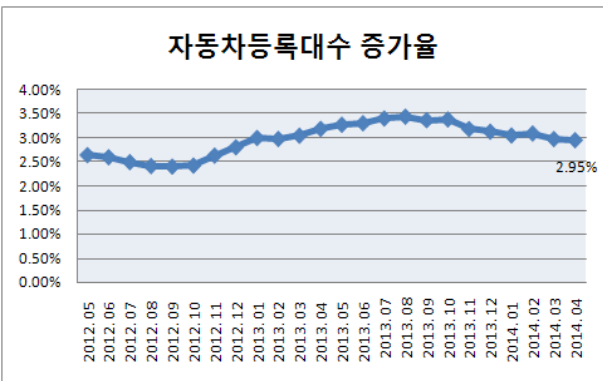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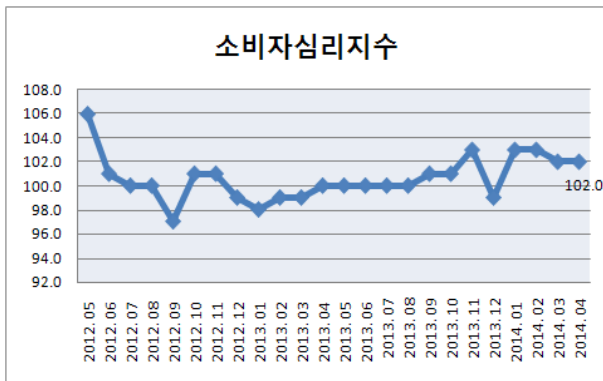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로 살펴본 광주지역의 고용특징을 정리하자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는 15~29세의 고학력 청년층의 구성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임. 이러한 특징은 2014년 2월호에서 인구이동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임. 즉, 광주지역의 고용개선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함.

1. 경기지표

- 광주지역 3월 경기확산지수¹⁾는 전월 3.7에서 소폭 하락한 3.3을 기록함. 고용관련 구성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제조업 관련 구성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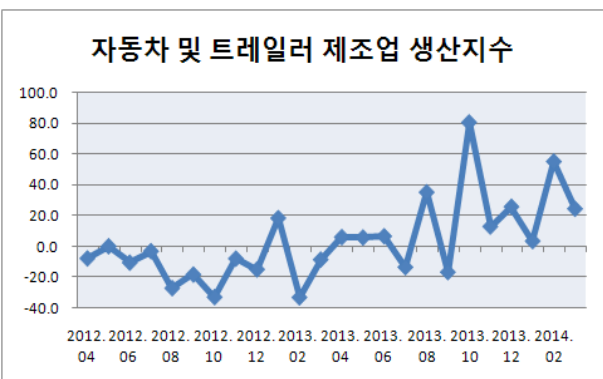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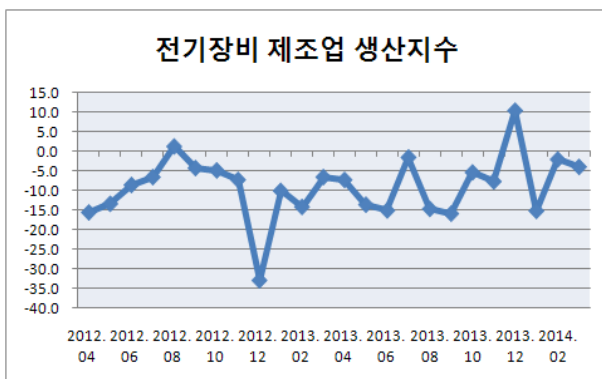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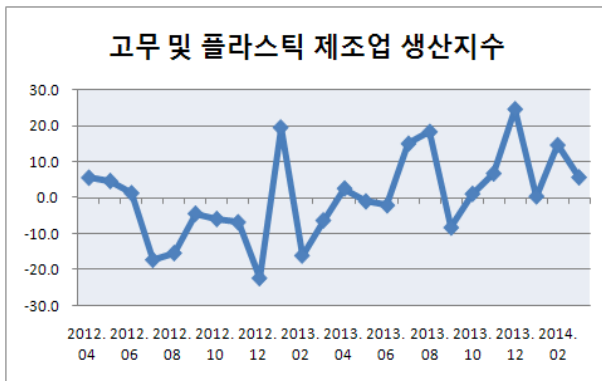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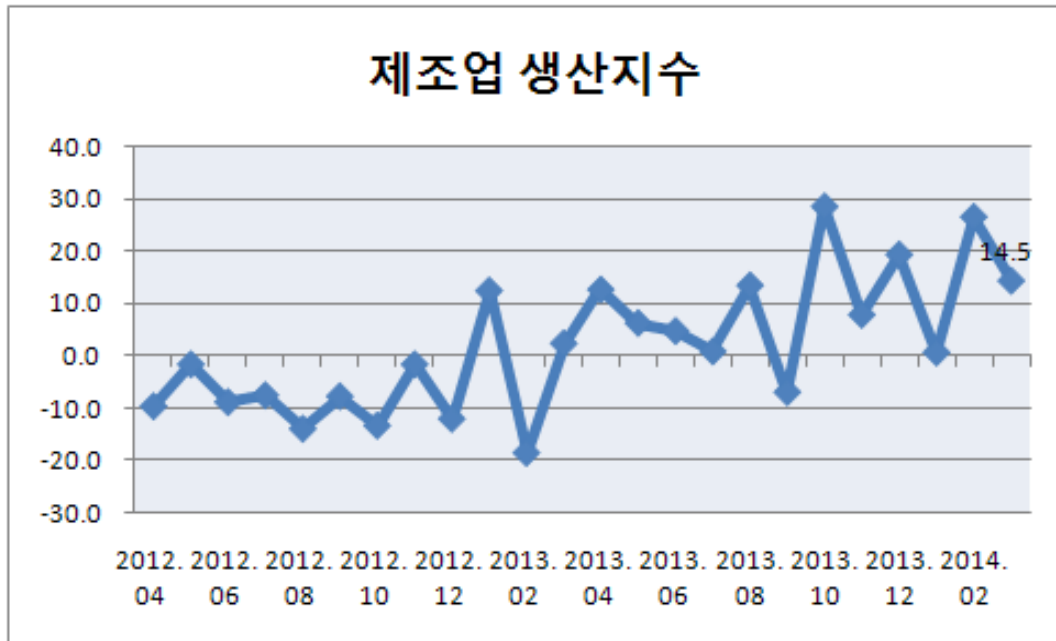


1)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생산, 수출, 내수, 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취합하였고 0에서 10사이에서 경기의 등락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기확산지수를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이전 지수와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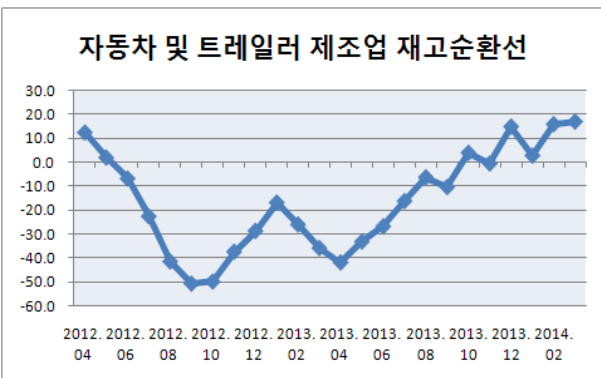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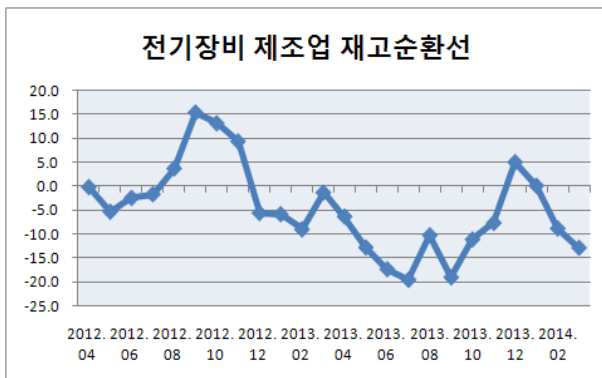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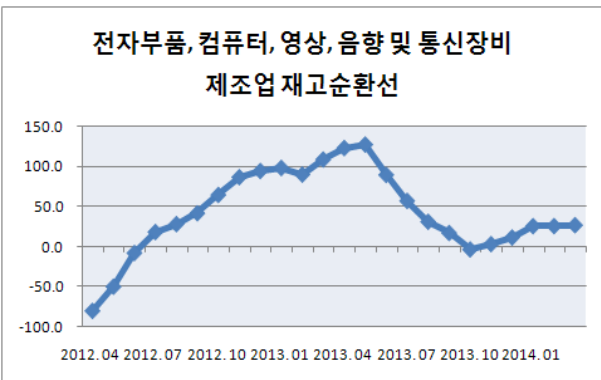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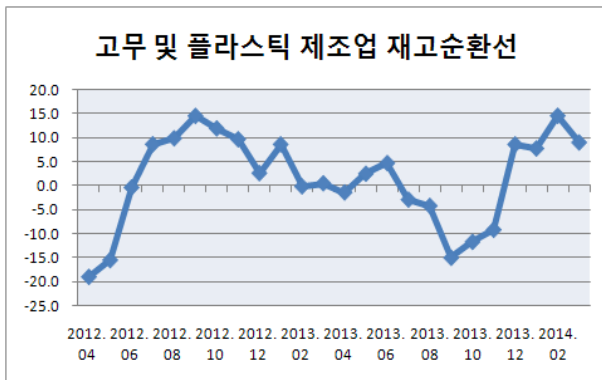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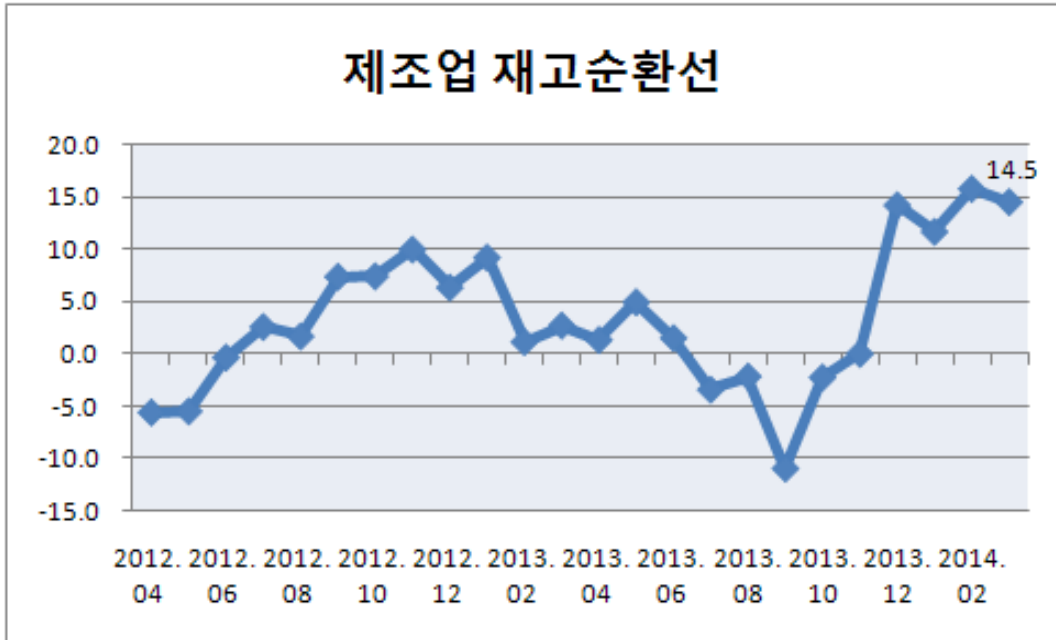


2. 제조업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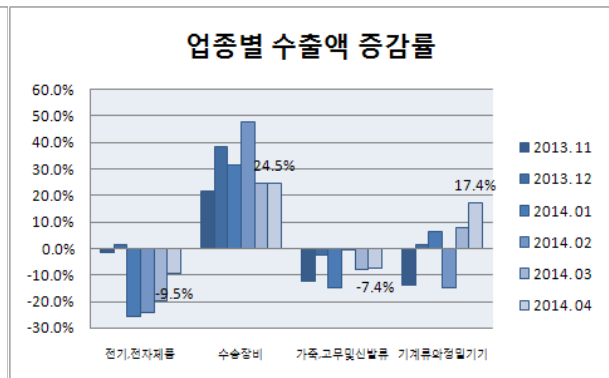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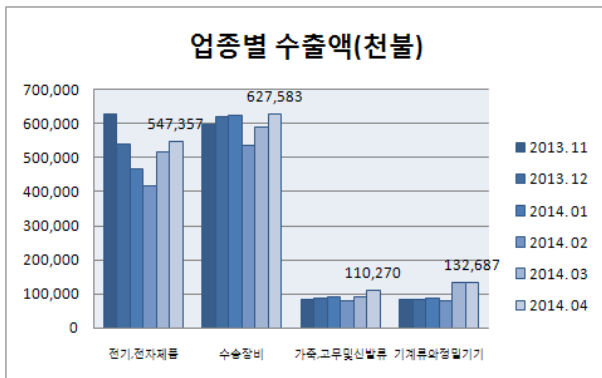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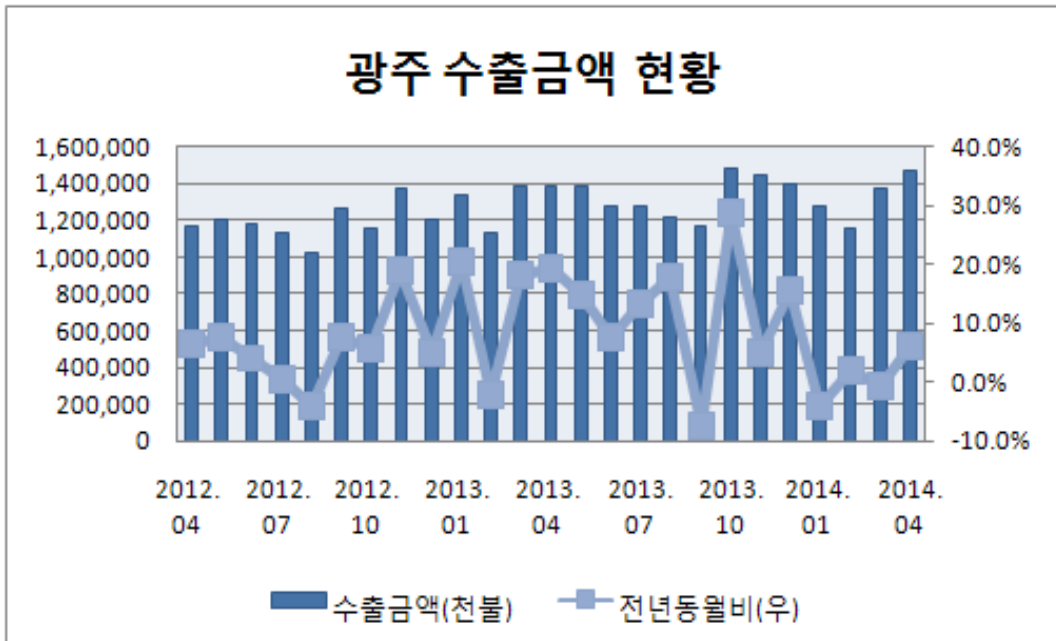
- 광주지역 3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14.5% 상승해 전월 26.7%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임. 주요 제조업종이 모두 전월에 비해 부진했고,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1년 가까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광주지역 3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한 14.5를 기록함. 여전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출하량의 변동에 따라 지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는 전기장비 제조업만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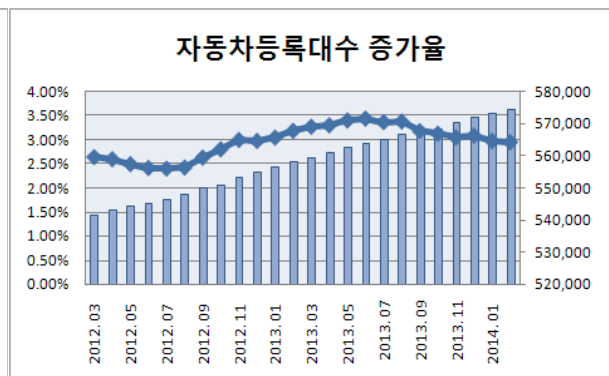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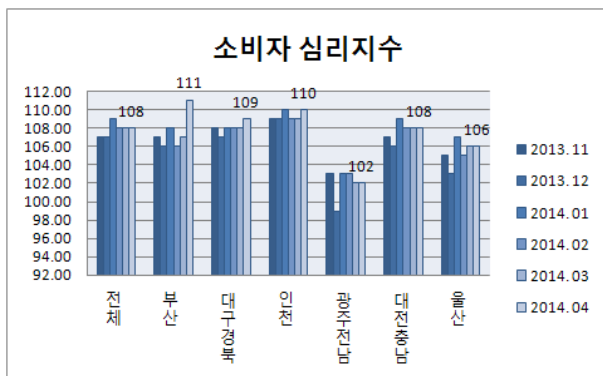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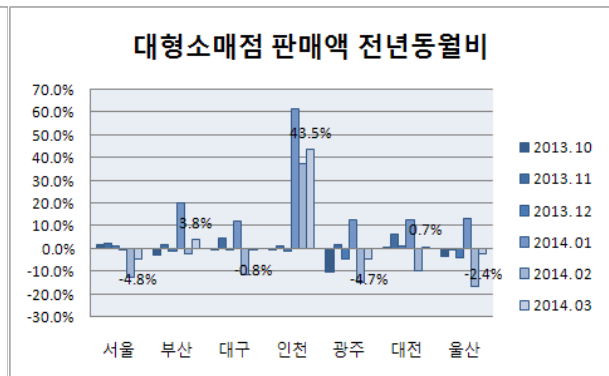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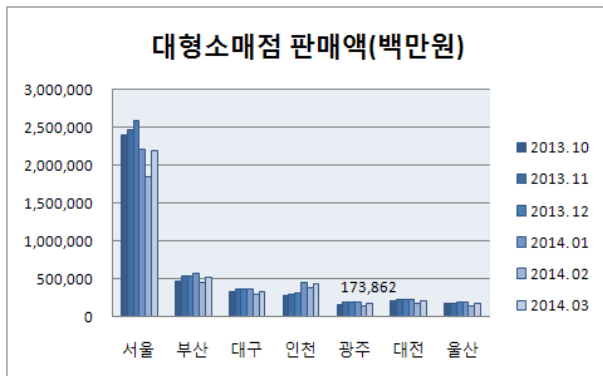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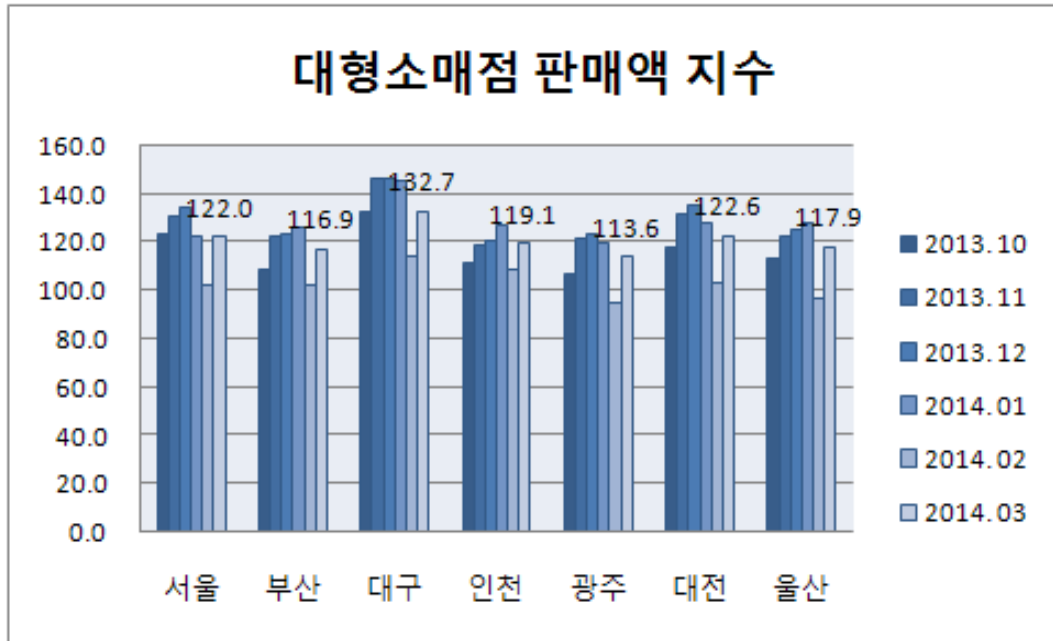


- 광주지역 4월 수출액은 14억7315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6.2% 증가했음. 주요 업종으로 보면 수송 장비(자동차 제조업)가 6.3억 달러로 24.5%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고 기계류와 정밀기기도 17.4% 증가한 1.3억달러를 수출했음. 고무제품은 전월보다 2천억달러가 증가한 1.1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동월비 -7.4% 하락했고 전기·전자제품은 -9.5%하락한 5.5억달러를 수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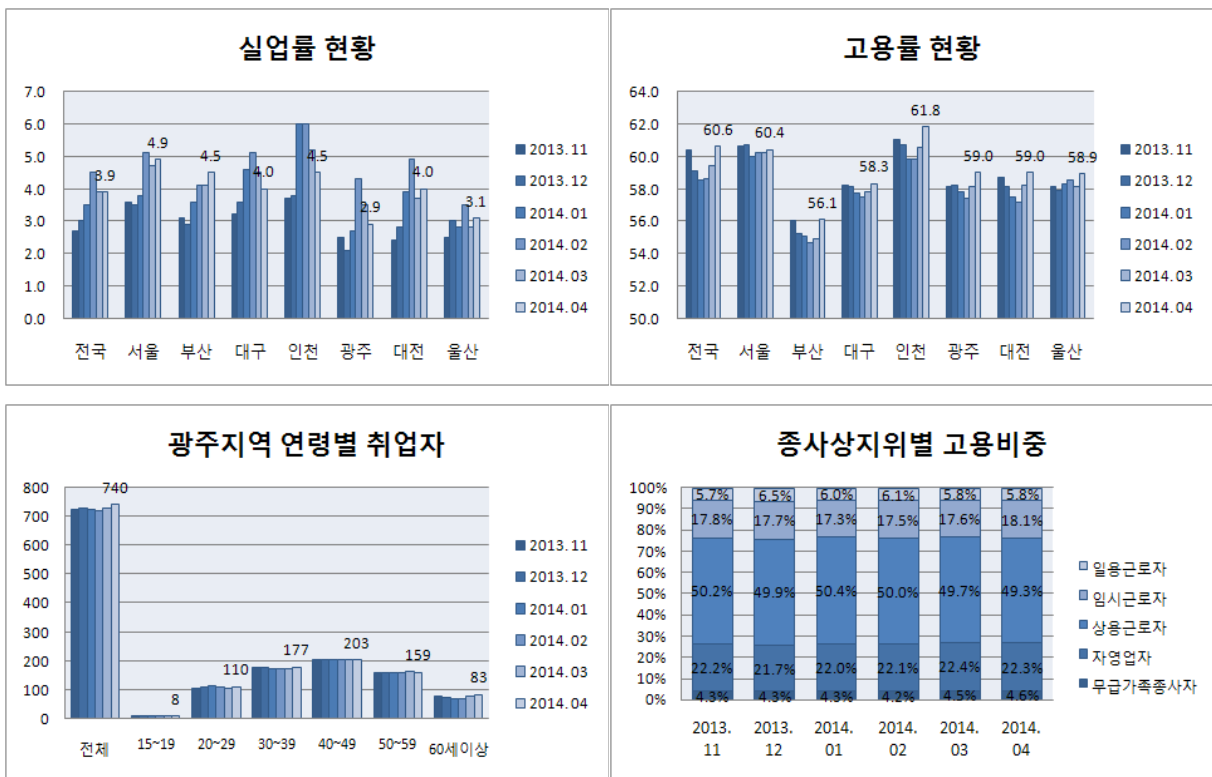
3. 내수

- 광주지역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크게 반등한 113.6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함.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738억원으로 전년동월비 -4.7% 하락하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률을 보임.
- 광주지역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로 전월과 같았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95%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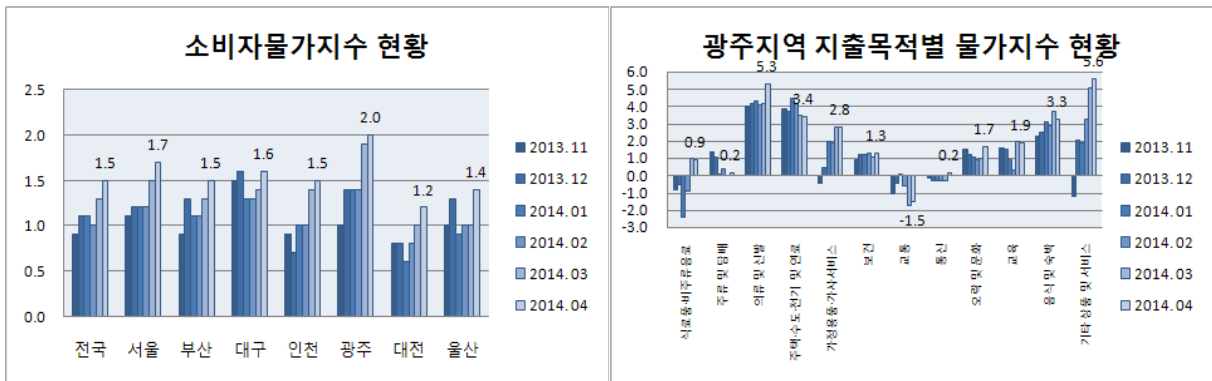
4. 고용

- 광주지역 4월 실업률은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2.9%를 기록함. 고용률은 59.0%로 전국 60.6%에 미치지 못하나 99년 6월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광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74만명으로 전월대비 1만9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8천명, 30~39세에서 3천명, 40~49세에서 1천명, 60세 이상에서 6천명이 증가함. 50~59세는 2천명 감소함.
- 자영업자의 수는 16만5천명으로 2천명이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1만1천명 증가한 54만2천명을 기록함. 특히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6천명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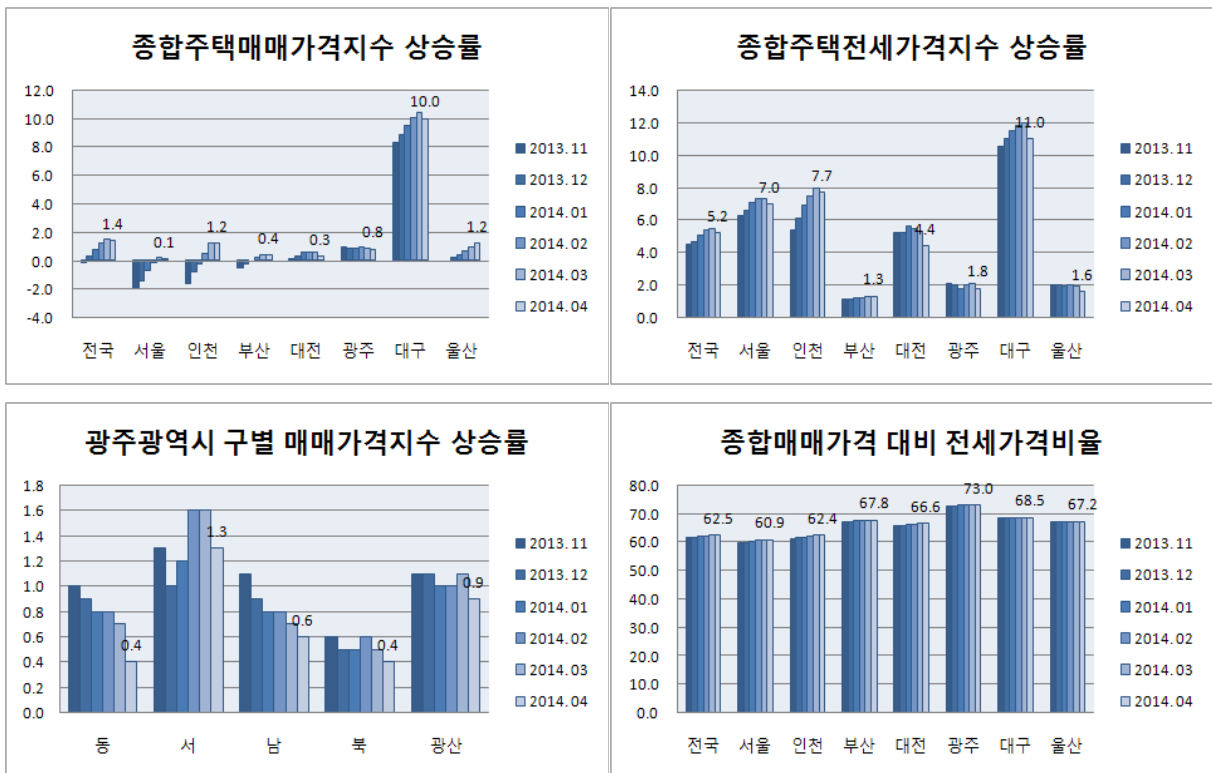


5. 물가

- 4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0% 상승함에 따라 4개월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지출목적별로 보면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 다수 항목에서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 4월 광주지역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8%,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8% 상승함. 서구의 매매가격지수가 1.3%로 가장 높고 동구와 북구의 상승률은 0.4%로 가장 낮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3.0%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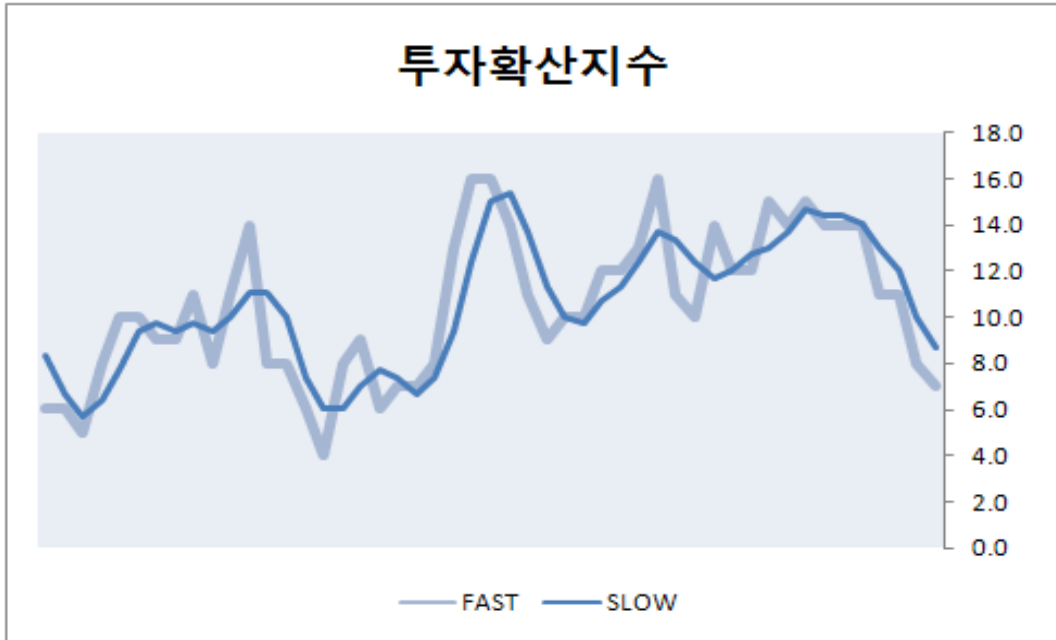


6. 투자확산지수²⁾

□ 2014년 5월 Fast 투자확산지수는 7.0로 하락, Slow 투자확산지수는 8.7로 5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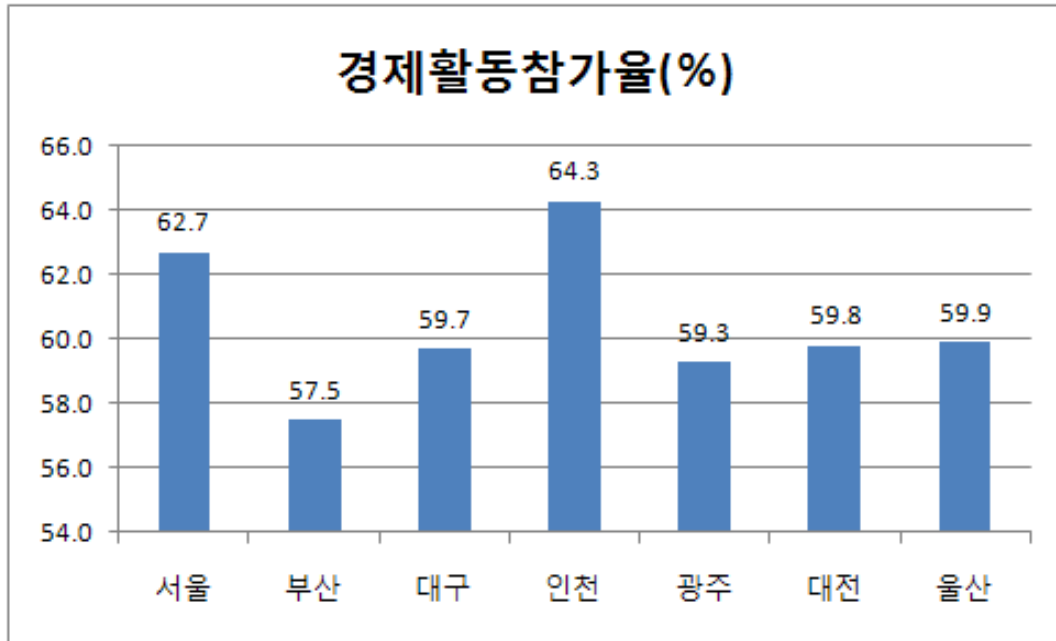
2) 투자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선정해 만든 확산지수입니다. 투자확산지수의 상승 시 투자를 결정 또는 확대, 하락 시 투자를 철회 또는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부터 빠르고 강한 신호를 나타내는 Fast 지표, 그리고 Fast보다 느리지만 신호 실패가 적은 Slow 지표로 나누었습니다.

세를 보이고 있음. 대부분의 국내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지수하락이 불가피했고 일부 상승한 지표도 방향성 없이 등락을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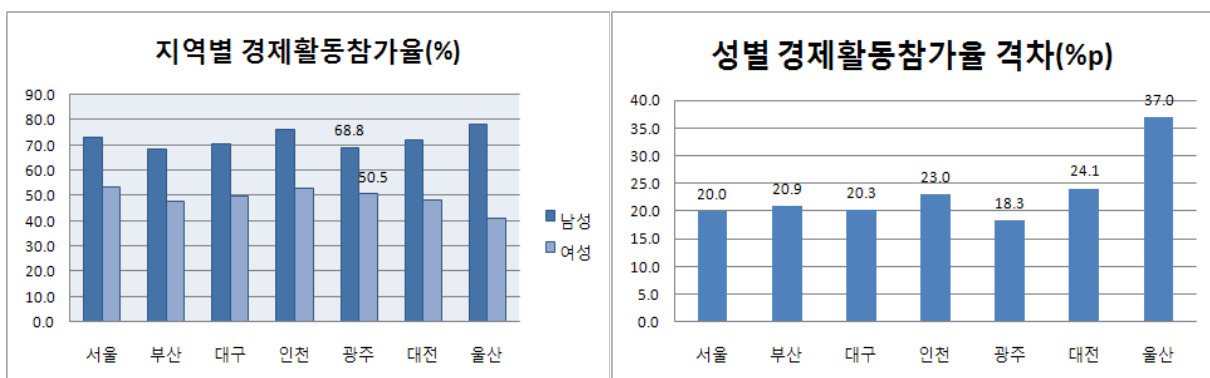


7. 집중분석 - 경제활동참가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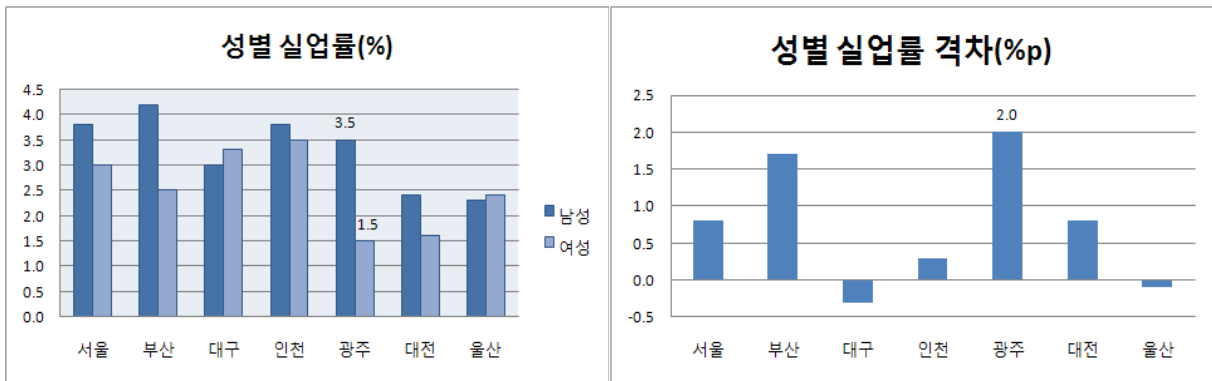
- 2013년 하반기 광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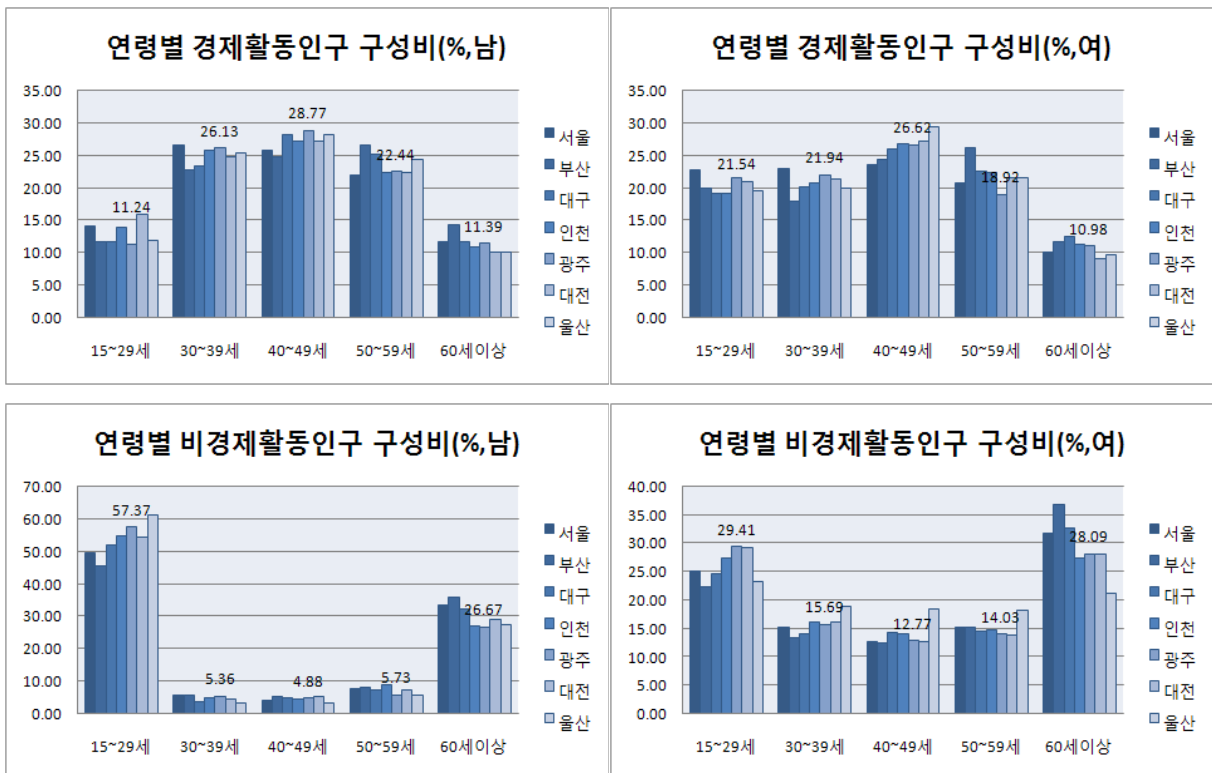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광주지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타 지역에 비하면 중간에 속하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8.8%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고 있음.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차감해보면 광주지역은 그 격차가 18.3%p로 가장 낮은데 이는 경제활동에 있어 남녀 차이가 적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남성의 경제활동여건이 상대적으로 위축 또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음.
- 성별 실업률을 보면 광주지역의 남성 실업률은 3.5%, 여성 실업률은 1.5%로 그 격차가 2%p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3) 통계청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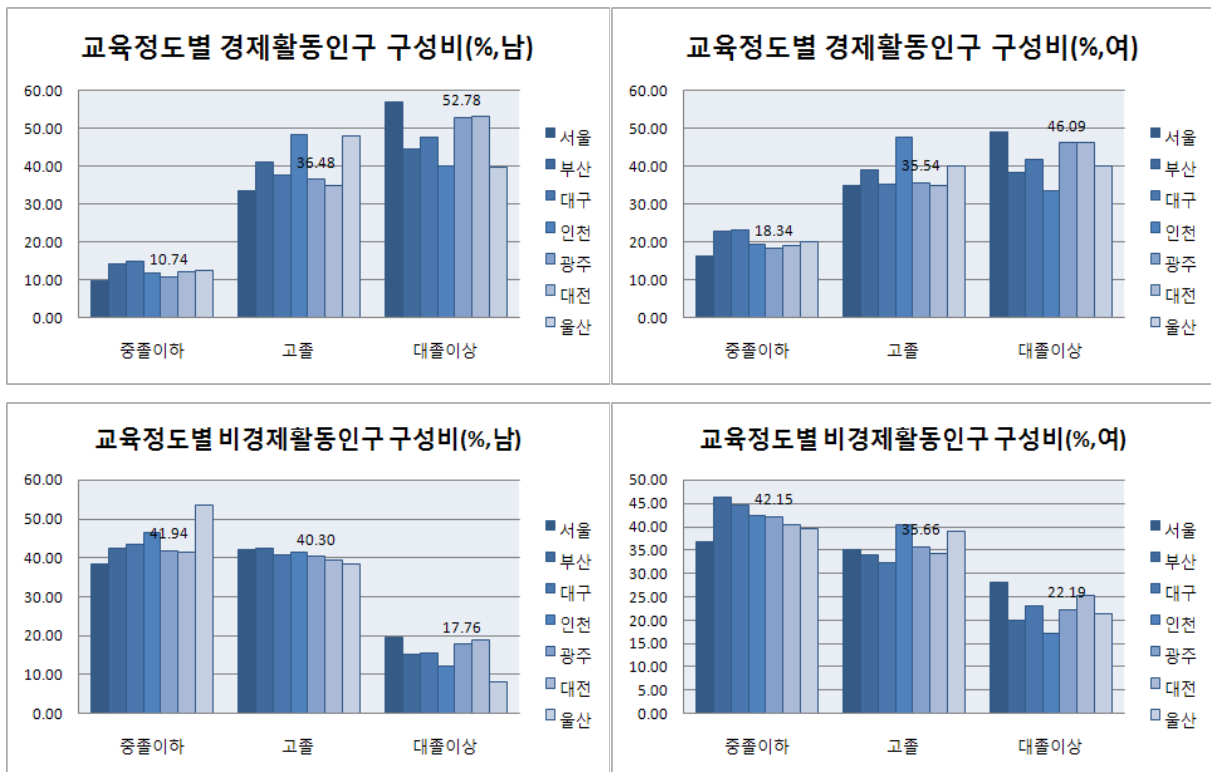


- 광역시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군복무로 인해 15~29세의 구성비⁴⁾가 낮는데 반해, 여성은 비교적 고른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광주지역에서 남성은 30대와 40대가 각각 26.13%, 28.77%를 차지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여주었고 여성은 15~29세와 30대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광역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에서와 같이 군복무 여부에 따른 성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은 15~29세의 비중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른 구성비를 보임.
- 광주지역은 남녀 모두 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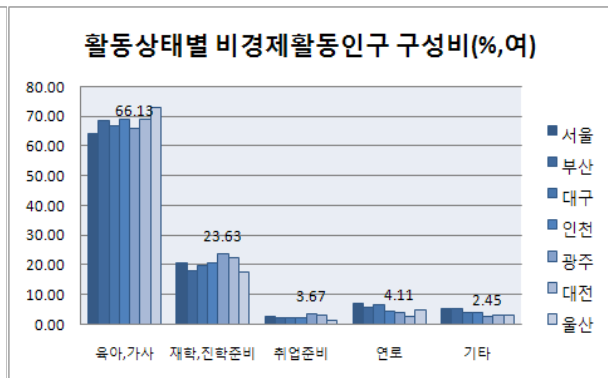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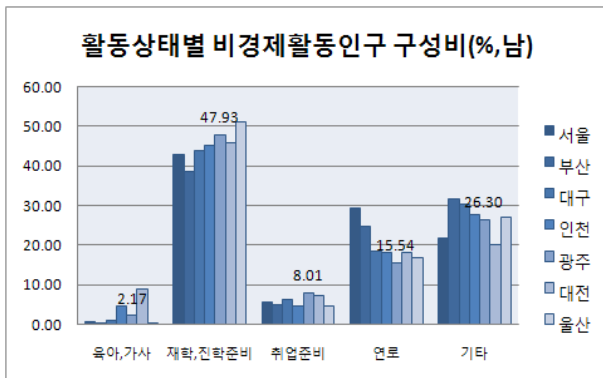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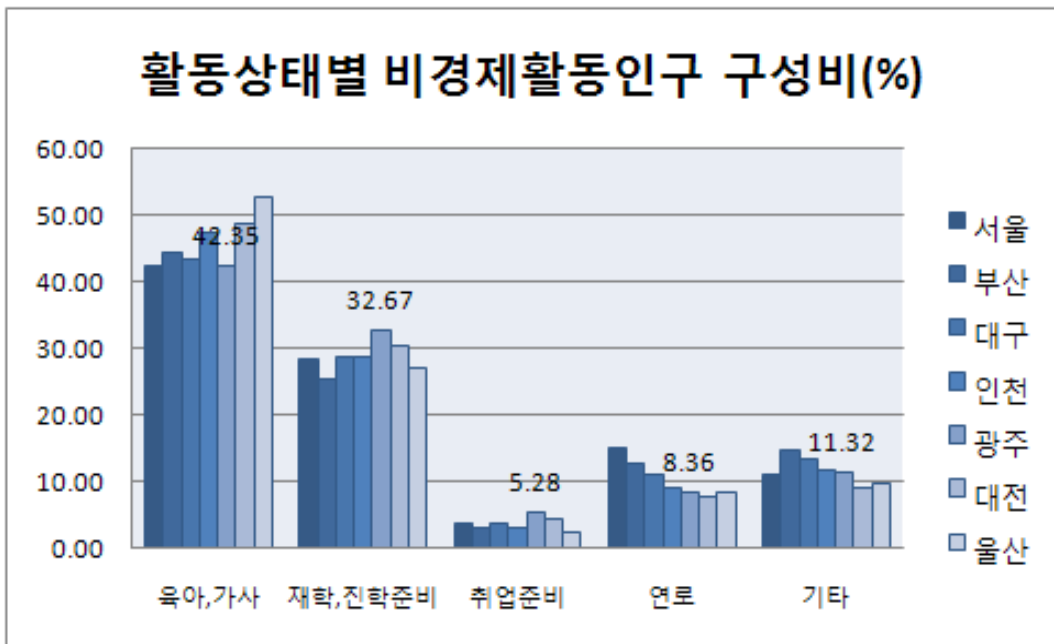


4) 경제활동인구수는 광주지역의 경우 남성이 41만5천명, 여성이 32만5천명으로 집계되었음.

- 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지역은 남녀 대졸이상의 비중이 각각 52.78%, 46.0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비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나누어보면 남녀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
- 광주지역은 대졸이상의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구분해보면 육아와 가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학과 진학준비의 비중이 높음.
- 남녀별로 나누어보면 활동상태의 구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남성은 재학과 진학준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가 가장 큰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광주지역은 육아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남녀 모두 재학과 진학준비, 취업준비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로 살펴본 광주지역의 고용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는 15~29세의 고학력 청년층의 구성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임.
- 이러한 특징은 2014년 2월호에서 인구가동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임. 즉, 광주지역의 고용개선과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